

강진군, 전남 투자유치평가 '최우수상'

강진산단 100% 분양조기달성 성과 높이 평가
“지역발전 선도 유망 中 小 企 유치 전방위적 활동”



지난 18일 강진군이 2019년 전라남도 시·군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투자유치 여건조성, 투자기업 사후관리 등을 평가한 결과 지난 해 정려상 수상에 그쳐 아쉬움을 삼켰던 강진

군이 올해는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2018년 준공 이후 저조한 분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강진산단을 활성화하고자 이승욱 강진군수는 민선7기 핵심공약으로 ‘임기 내 강진산단 100% 분양’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전 군민과 공직자를 투자유치요원화 했다.

지자체 장의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군은 일자리창출과 신설, 투자유치 인원 증가,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가점, 민간인에게는 포상금 지급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투자유치 위원회와 기존 산단 입주자를 중심으로 한 경영자협의 회까지 민·관의 협력을 통한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힘썼다. 그 결과 1년 만에 강진산단 100% 분양을 달성했다.

특히 국내·외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타 시 지역 산단 분양률이 10%대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강진산단은 100% 완판에 성공해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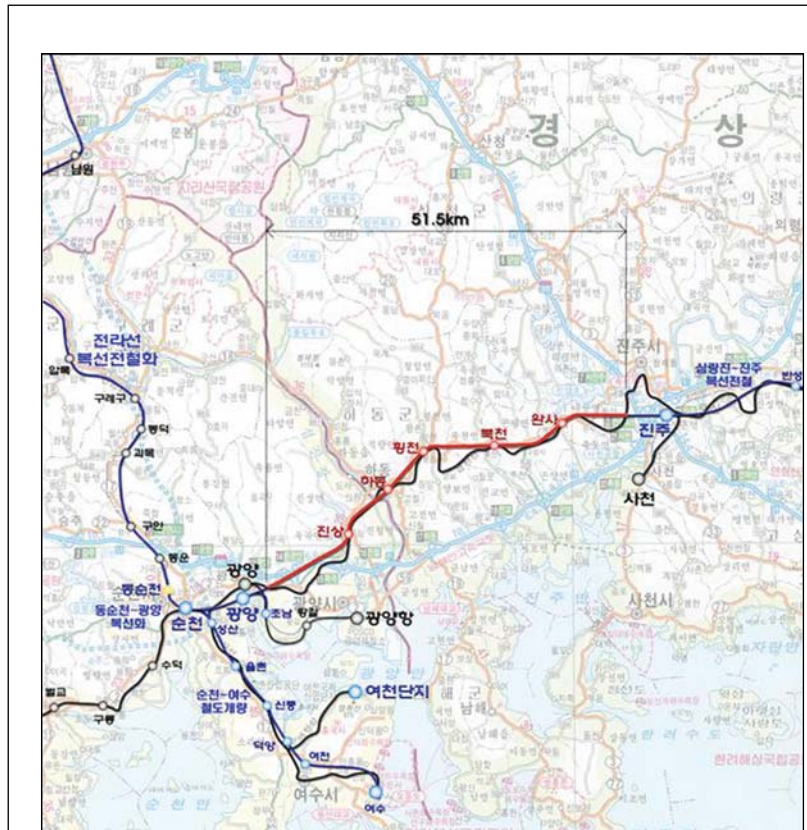
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지난달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2019 강진산단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취업박람회에는 구직 희망자 총 3,000명이 방문했고 그 중 41명의 채용이 확정됐다. 채용 확정자 외에도 상담을 받았던 구직희망자들에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이승욱 군수는 “강진산단 기업들의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강진산단 내 총 42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입주 기업 중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은 8곳, 준공 3곳, 공사 중인 곳은 10곳으로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내 착공예정 에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경전선 광양~진주 구간 전철화 사업 착공

2021년 완공 예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비전철 운행구간인 경전선 전남 광양~경전선 진주 51.5km 구간의 전철화 사업에 착공한다고 18일 밝혔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39억원이 투입된다.

광양~진주 구간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남 순천역에서 부산 부전역을 잇는 동부 경전선 전 구간(146.7km)이 전철화 된다.

친환경 전기철도인 시속 200km급 고속철도가 디젤열차를 대체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5.8% 줄고, 진주~광양 구간 운행시간(모든 역 정차 기준)은 1시간6분에서 41분으로 25분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전선은 2012년 6월 순천~광양 구간, 같은 해 12월 진주~마산 구간이 전철화돼 우선 개통했고, 마산~부전 구간도 내년 6월 전철화 된다.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영남과 호남을 더 빠르게 잇는 경전선 광양~진주 전철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대기질 개선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증가...연말연시 단속 강화

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청과 경찰서, 기동대 등 가용 경찰력을 총 동원해 주간과 야간은 물론 심야에도 장소를 불문하고 스포츠카 등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32.4% 감소, 고령자·보행자 등 대부분 지표에서 사망사고가 감소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지난해 4명에서 올해 5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이에 광주경찰은 연말연시 잦



은 술자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방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음주 시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2047년 광주 인구, 올해대비 15.4% 감소...전남은 -9.1% 줄어든다

호남지방통계청

2047년 인구는 올해 대비 광주 15.4%, 전남은 9.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인구로 보는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미래 변화’ 자료에 따르면 광주 인구는 2015년 150만 6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은 149만 400명으로 전국 대비 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2033년에는 139만 800명으로 140만 명선이 무너지고, 2044년에는 129만 800명으로 130만 명선도 하회하게 된다.

이어 2047년에는 126만 3000명까

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19년 대비 15.4%가 줄어들게 된다.

전남 역시 인구 감소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 인구는 2016년 179만 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177만 3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은 3.4%다.

이같은 인구 하향곡선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2035년이 되면 169만 6000명으로 떨어져 170만 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47년에 접어들면 161만 1000명까지 떨어지며 2019년 대비 -9.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봉우 기자

‘겨울밤 추억’ 순천만정원 별빛축제, 내일 개막

순천시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39일간 순천만국가정원 서문광장과 습지센터에서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축제’를 개최한다.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별빛축제의 주요 관람 포인트는 공룡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인 ‘나이트 사파리’와 별빛으로 물든 국가정원

야간경관, 실내 연출 등이다.

미디어 아트 ‘나이트 사파리’는 서문 나무도감원과 평화정원에서 새로운 공룡 세계로 펼쳐진다.

이곳에서는 3D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 보다 생생한 공룡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크고 작은 공룡들의 이야기를 따라 걷다보면 커다란 공룡 조형물도 만날 수 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